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수집 · 보존 계획서

Version 1.0

2014. 6. 5.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

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팀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산하 단체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단이며,
서울시청의 추모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팀'을 운영중입니다

http://www.facebook.com/sewolarchives 02-712-0416 sewolarchives@gmail.com

차례

1. 개요 ····· 1

1.1. 세월호 사고 추모 기록물의 정의 및 범위 ····· 1

1.2. 활동 개요 ····· 2

2. 서울시 추모기록 현황 분석 ····· 4

2.1. 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 분향소 운영현황 ····· 4

2.2. 추모기록 현황 분석 ····· 9

3. 추모기록 생산활용 맥락 예비조사 ····· 16

3.1. 맥락정보 구축 절차 ····· 16

3.2. 맥락정보 구축 현황 ····· 20

4. 수집계획 수립 ····· 28

4.1. 수집계획 수립절차 및 대상 확정 ····· 28

4.2. 부분정리 ····· 29

4.3. 생산맥락 축적 및 기증조건 협의 ····· 30

4.4. 1차 수집정리 ····· 32

4.5. 상세정리 ····· 37

5. 보존 관리 ····· 41

5.1. 작업공간 확보 ····· 41

5.2. 보존공간 확보 ····· 42

부록 1. 리드/케이스 파일 예시 ····· 43

부록 2. 개요목록 예시 ····· 50

부록 3. 기록 기증 관련 양식 ····· 52

1 개요

1.1. 세월호 사고 추모 기록물의 정의 및 범위

❒ 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물' 정의

- ㅇ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서울시가 주관하여 추모시설·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 개인, 시민단체, 서울시 등이 생산한 다양한 형태의 추모 기록
- ㅇ 위의 추모시설·행사를 서울시 등이 촬영한 사진·동영상 형태의 기록
- ㅇ 위의 추모시설·행사를 운영한 서울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구술 기록[1)]
- ㅇ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물 기록화사업' 관련 기록
-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생산·접수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로 관리될 것이므로 제외함

❒ 수집·보존 대상 추모기록물의 범위

- ㅇ 서울광장 소재 분향소 및 추모시설의 추모기록물
  - 2014. 4. 27. 설치 이후 철거 시점까지 시민이 남긴 추모기록물
  - 분향소 및 추모시설을 서울시 등이 촬영한 사진·동영상 형태의 기록
- ㅇ 청계광장 소재 추모기록물
  - 임옥상 작가의 작품 '못다핀 꽃'이 설치되고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청계광장에서 추모를 위한 종교행사를 개최한 이후, 시민이 남긴 추모기록물
  - 작품 설치, 행사 개최, 그 후 모습 등을 서울시 등이 촬영한 사진·동영상 형태의 기록

1) 1차적으로는 추모기록의 맥락을 규명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며, 본격적인 구술 채록 여부는 추후 재논의할 예정임

❒ 수집·보존 대상 추모기록물의 식별

번호	장소	시설·행사명	운영기관·단체
1	서울광장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서울시 총무과·행정과·서울시자원봉사센터
2		소망과 추모의 벽	서울시 행정과·적십자사 서울지지부
3		애도와 성찰의 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		노란 리본의 정원	서울시 조경과·(사)한국조경사회
5	청계광장	못다핀 꽃	임옥상·임옥상미술연구소·서울시설관리공단
6		노란 리본 달기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서울시설관리공단

1.2. 활동 개요

❒ 서울시의 주요 추모시설·행사 운영 경과

- 4월 27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
- 5월 7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관련 기록물」 기록화사업 추진 계획'[2] 수립
- 5월 12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계획'[3] 수립

❒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의 서울시 기록화사업 참여 경과

- 5월 13일 자원봉사단의 참여를 위한 사전 검토회의 개최
- 5월 23일 '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팀' 구성 완료 및 실무착수회의 개최 : 제1단계 활동 개시

❒ 서울시와 기록관리 전문가 자원봉사단이 협력하여 거버넌스 실현

2) 문서번호 : 정보공개정책과-9396. http://opengov.seoul.go.kr/section/1455126
3) 문서번호 : 총무과-12705. 비공개 문서임. 행정국에서 "무사귀환 소망 종이 및 리본 관리"를 담당하여, 이를 "분향소 운영 완료 후 정보공개정책과 이관"한다는 계획을 명기하고 있음.

❒ **자원봉사단 활동을 다음과 같이 단계 구분하여 추진중**

ㅇ 제1단계 : 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서울시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마련
- 수집 대상 기록, 수집 방법, 개요목록 예시 포함

ㅇ 제2단계 : 수집
- 기록관리 전문가 자원봉사단이 기존 시민 자원봉사단(예를 들면 적십자사 자원봉사단 등)과 함께 사업장까지 추모기록물을 수습

ㅇ 제3단계 : 분류·정리·1차 기술
- 사업장에 도착한 추모기록물을 기록관리 전문가 자원봉사단과 신규 시민 자원봉사단(대학생 예정)이 함께 분류·정리·1차 기술

ㅇ 제4단계 : 마무리 (최종 정리)
- 기록관리 전문가 자원봉사단이 필요시 추가 기술 등을 수행하고 최종 정리하여 마무리
- 제4단계 활동이 완료되면, 자원봉사단 활동은 종료하고,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최종 기술, 활용 등 추진

❒ **활동체계**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제1단계</th><th>제2단계</th><th>제3단계</th><th>제4단계</th></tr>
<tr><td>서울시
업무
담당자</td><td>-</td><td>-</td><td>-총괄
-지원</td><td>-총괄
-지원</td><td>-총괄
-지원</td><td>-총괄
-지원</td></tr>
<tr><td rowspan="3">자원
봉사단</td><td>기록관리
전문가
자원봉사단</td><td>-</td><td>-계획 수립
-예비조사</td><td>-수집</td><td>-분류·정리
-1차 기술</td><td>-마무리
(최종 정리)</td></tr>
<tr><td rowspan="2">일반시민
자원봉사단</td><td>기존</td><td>-</td><td>-수집</td><td>-</td><td>-</td></tr>
<tr><td>신규
(대학생)</td><td>-</td><td>-</td><td>-분류·정리</td><td>-</td></tr>
<tr><td>예상
시기</td><td>-</td><td>-</td><td>-5. 23 개시
-6. 5. 현재
마무리중</td><td>-예측
불가능</td><td>-제2단계
종료 후
결정</td><td>-제3단계에
이어서 진행</td></tr>
</table>

❒ **본 보고서는 제1단계 활동의 결과물에 해당됨**

2 서울시 추모기록 현황 분석

2.1. 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 분향소 운영 현황

Check

✓ **서울시의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화 사업을 위해 분향소 운영현황(주체, 활동) 파악**
✓ **분향소 운영과 관련된 기록의 생산관리 현황 파악**

❐ **서울시 세월호 사고 분향소 운영 및 추모행사 현황**

- 2014.04.27. 분향소 설치
-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귀환을 위해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분향소 등 추모공간 운영
- 5월 광장행사의 일정 연기에 따라 행사 관련 단체의 자체적 모금으로 추모정원 조성(노란 리본의 정원)
- 청계광장 추모행사와 그에 따른 추모기록은 부처님 오신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
-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기 위한 작가(임옥상미술연구소)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요청 청계 광장에 추모작품('못다핀 꿈') 설치

<표 1> 서울시 분향소 운영 및 추모행사 현황

장소	행사명	기관	비고
서울광장	분향소	총무과	-서무팀 분향소 운영 총괄
		행정과	-추모의 벽 운영, 생산기록 현황 파악 -파악 후 기록은 총무과 이관
	소망과 추모의 벽	대한적십자사	-추모의 벽(노란리본, 희망종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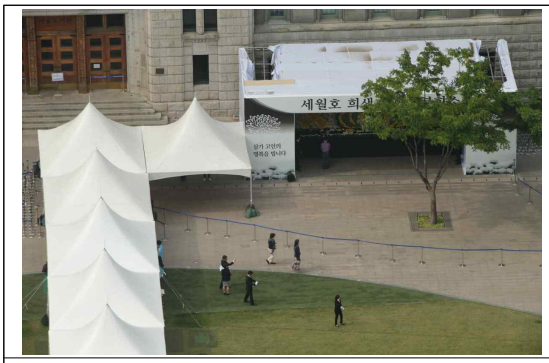
장소	행사명	기관	비고
	애도와 성찰의 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 유도, 추모기록 생산
	노란 리본 정원	조경과	- 서울시에 제안된 정원 조성 협조 - 한국조경사회가 제안한 추모정원 공동 운영
		한국조경사회	- 5월 조경문화박람회가 '세월호 사고'로 취소되면서 한국조경사회가 회원 모금을 통해 정원 조성, 서울시에 제안, 운영
청계 광장	노란 리본 달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연계 행사 및 추모작품 전시 공간 제공(허가)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 노란리본 달기 행사 실시
	못다핀 꽃	임옥상미술 연구소	- 세월호 희생자 추모작품

❒ 서울시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간 구역별 전경

ㅇ 서울광장4)

4)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5월 19일 촬영한 사진.

- 구역(Zone)별 모습

<table>
<tr><td>  </td><td> </td></tr>
<tr><td>분향소</td><td>소망과 추모의 벽</td></tr>
<tr><td> </td><td> </td></tr>
<tr><td>애도와 성찰의 벽</td><td>노란리본의 정원</td></tr>
</table>

ㅇ 청계광장[5)]

- 구역별 전경

못다핀 꽃(임옥상 화백 작품)	노란리본 달기

5)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5월 19일 촬영한 사진.

❒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기록물 기록화 사업’ 추진

- ㅇ 분향소 설치 후 04.30 정보공개정책과 내 기록화 사업 추진 일환 1차 현황조사
- ㅇ 05.07 기록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국장 방침)
- ㅇ 05.09 서울광장, 청계광장 추모행사 관련기관 현황 기초조사 실시
  - 운영주체에 기록화 사업 취지 전달
  - 추모기록 서울시 보존, 활용에 대한 논의
- ㅇ 05.14 작업장, 전산장비 확보(지하 4층)
- ㅇ 05.16 기록학계와 연결, 민관 추모기록 기록화 협조체계 구축(자원봉사)
- ㅇ 05.19~20 기록화를 위한 서울광장 및 청계광장 전경 사진 촬영
- ㅇ 05.23 기록관리 전문가로 ‘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팀’ 구성 완료 및 실무 착수

❒ 추모기록물 생산·관리 현황(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ㅇ 협조체계 구축
  - 추모행사 종료 후 남게 될 추모기록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연관부서, 단체와 상호 협조 구축 진행중
  - 행사 의전부서에서 분향소를 운영(총무과, 행정과)하고 있으므로 세월호 기록화 사업 협조를 위한 공문 및 협의를 통해 협조 체계 구축 진행중
  -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생산되는 기록을 파악, 종료 시 이관 준비중
  - 공식 분향소와 연계하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기록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추모기록 생산 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종료 시 하나의 (기록)컬렉션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중

- ㅇ 생산(활용상태) 기록 관리
  - 기록의 상태 및 분향소 상태를 점검하여 기록물이 기상변화 등에 최대한 영향받지 않도록 협의하고 진행중
    · 애도와 성찰의 벽 추모기록 비닐 씌우기
    · 기록화 사업에 대한 협조 공문(물리적 관리 및 배경정보 관련)
  - 추모공간의 기억과 재현을 위한 촬영

· 주변 건물 옥상에서 서울광장 및 청계광장 전체 배경사진 촬영
· 관련부서 시청각 기록 파악

- 기록 생산과 관련하여 주요한 배경정보 포착을 위한 리드(기록생산자 정보) 확인
  · 각 구역의 주요책임자 등 선별, 접촉 준비
- 추모 공간 부족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기록의 부분 정리
  · 소망과 추모의 벽 희망종이에 대해 행정과가 파악하여 수습하고 총무과로 부분 이관, 추후 최종 이관되도록 기록 보호

2.2. 추모기록 현황 분석

Check

✓ **서울시 추모기록의 유형적 특성 파악**
✓ **보존을 위한 상태분석**
✓ **보존활용을 위한 관리권한 확보**

❐ **서울시 추모기록 유형별 특징**

ㅇ 유형적 특징

- 안산 정부 공식분향소를 제외한 가장 지명도 있는 분향소로서 단체 단위의 추모기록물이 다수 보임
  · 초등학교 학급단위 추모글 모음, 판넬형 추모글 등
- 추모기록의 특성상 대량 동종의 기록이 양적으로 많이 생산됨
  · 리본띠, 방명록, 희망종이 등
-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운영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된 기록이 주요기록임
  · '기억할게' 종이배 모음, 미술전문가와 시민들이 합동으로 만든 걸개그림 등
-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추모 및 애도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한 작품 설치 및 기부
  · 조형적 의미(눈물방울 혹은 쉼표)를 담은 조경설치 작품, 미술전문가가 설치한 반성과 성찰의 의미를 담은 작품(성찰적 글귀와 발모양의 설치미술), 임옥

상 미술연구소의 '못다한 꽃' 등

· 작가들이 디지털 작품을 시민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기부, 출력, 코팅된 작품 게시

- 시민의 작품형 그림, 서예형 추모글, 외국인의 추모글 등 서울광장의 개방적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추모기록 유형이 다수임
- 기타 시민단체 등이 기획한 퍼포먼스 유형(플래시 몹,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의 행사 등이 개최되었으나 일회성으로 추진되어 이를 포착하기 어려움

❒ 서울시 추모기록 세부 유형

ㅇ 종이재질

- 모음형 추모글, 낱장형 추모글, 방명록, 서예형 추모글, 피켓형 추모글, 서신형 추모글, 유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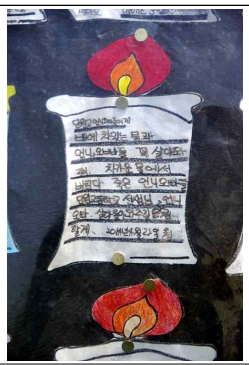
ㅇ 시청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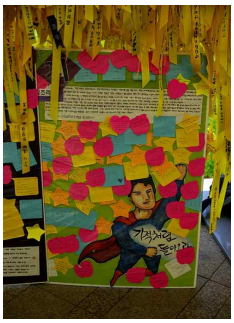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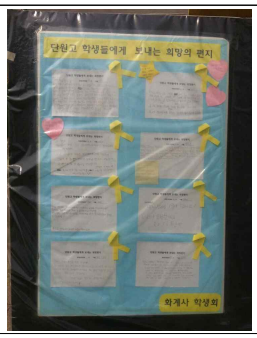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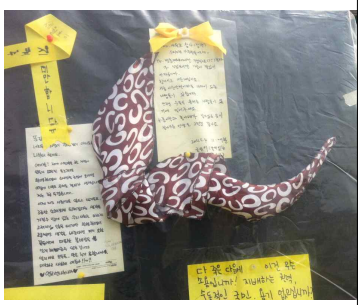
- 분향소 관련 시청각자료, 추모기록 관련 시청각자료, 추모 행사(플래시 몹, 기도회 등) 관련 시청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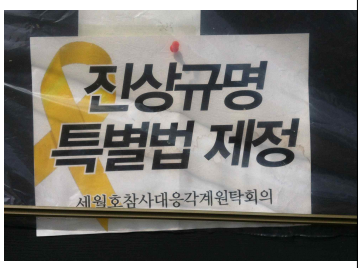
ㅇ 박물류

- 작품형 추모그림, 현수막, 리본띠, 판넬형 추모글, 걸개그림, 작가 조형작품, 자원봉사 관련 물품(명찰, 조끼), 근조리본 및 화환, 소형 박물류, 종이배 모음, 포스터

<사진 1> 추모기록 유형

		
모음형 추모글1	모음형 추모글2	단체 모음형 추모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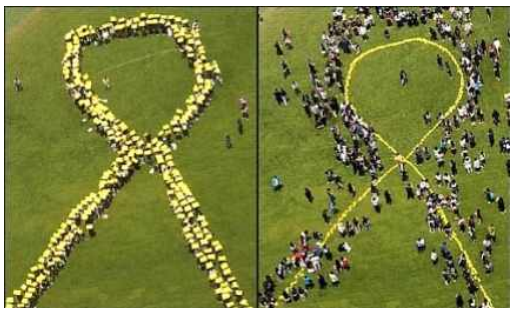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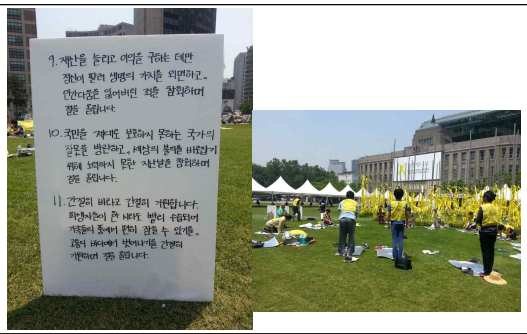
		
판넬형추모글 및 접착메모지	판넬형 추모글2	작가 조형작품1
작품형 추모그림1	현수막	작품형 추모그림2
		
서신형 추모글	박물(스카프)	작품형 박물(작가 작품)
걸개그림	리본띠	서예형 추모글

박물(군번)	작품형 추모그림3	박물(종이배)
		
작가 조형작품2	피켓형 추모글	종이배 모음('기억할게')

ㅇ 퍼포먼스 유형 추모기록

- 서울시 추모공간에서 계속 존재하는 기록유형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시간·장소를 정한 뒤에 모인 다음, 추모나 애도의 행동을 수행한 것을 기록화한 유형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인간리본 플래시 몹' 사진, 화쟁코리아 100일순례 세월호 참사 기도회 동영상 및 사진, 유인물

<사진 2> 퍼포먼스 유형 추모기록

	
플래시몹	세월호 참사 기도회

ㅇ 추모기록 생산활용 맥락관련 기록

- 분향소 및 추모행사를 운영한 주체들의 추모활동과 기록 생산활용 맥락 청취를 통해 추모기록 생산배경 파악, 기술(Description) 정보 축적
- 주관단체에서 행사 추진시 생산한 문서(사업계획서 등 서울시 미등록 문서), 맥락 청취 인터뷰 녹음파일, 녹취록, 사진 등

<사진 3> 생산활용 맥락관련 기록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청계광장 리본띠 묶기 행사 관련 문서</td>
<td>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맥락 청취</td>
</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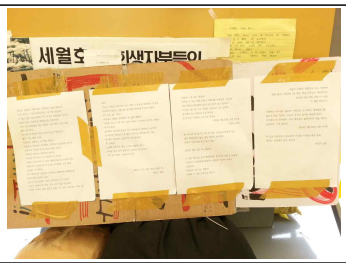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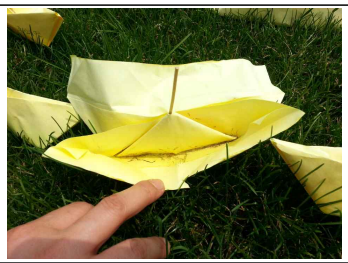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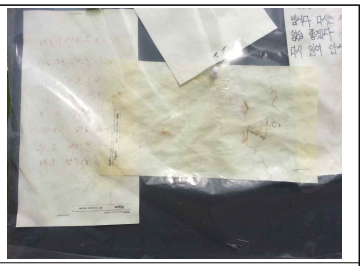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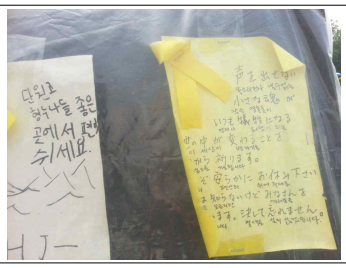
❒ 서울시 추모기록 상태분석

ㅇ 물리적 상태

- 종이재질의 기록의 경우 접착테이프로 고정시킨 기록이 대부분으로 기록정리시 난제
- 기상변화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번짐, 퇴색, 변색 등이 심한 추모기록이 다수
- 나무판에 종이글을 고정시킨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기 어려워 기록정리시 기록훼손이 문제될 수 있음
- 서울광장의 소망과 추모의 벽의 리본띠는 계속 누적되어 띠(줄)에 비해 리본이 포화상태이므로 과밀도에 따른 보존문제 대두
- 노란리본의 정원은 낱장의 리본띠가 다량으로 묶어져 있는 형태로 기상변화와 직사광선에 의해 번짐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기록정리시 일일이 하나씩 풀어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 걸개그림은 대형 사이즈에 유화물감으로 제작되어 활용되는 동안 직사광선으로 인한 그림내용의 탈락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 '기억할게' 종이배의 경우 번짐, 퇴색현상 및 배 안쪽으로 다량의 먼지를 품고

있어 수집시 바깥에서 먼지제거 등의 보존처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일부 편지의 경우 빗물, 직사광선 등으로 인하여 글이 번지거나 잉크 색이 바래져 내용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도 있음
- 혹은 기상상태에 따라 접히거나 울거나 찢어진 경우가 있음

<사진 4> 추모기록 물리적 상태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접착테이프 고정상태</td><td>먼지와 이물질 포함상태</td><td>텍스트가 번진 상태</td></tr>
<tr><td>  </td><td> </td><td> </td></tr>
<tr><td>빛에 의한 손상 상태</td><td>그림내용 탈락상태</td><td>리본띠 과밀상태</td></tr>
</table>

ㅇ 관리권한 확인
- 물리적 기록 수집과 함께 기록 보존, 활용과 관련된 관리적 권한 확보 필요
  · 임옥상 선생의 '못다핀 꽃'은 원래 설치작품에 시민들이 노란띠를 묶어 하나의 또다른 창작품을 만들어냄. 작가가 사회적 작품으로 이를 필요한 곳에 기증(존치)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작품의 존치공간 확보 결정 필요. 작품의 존치 여부에 따라 노란띠도 같이 작품과 같이 이동해야 함
  · 서울광장의 애도와 성찰의 벽의 걸개그림 생산은 4점으로 파악, 이 가운데 두 개가 안산 중앙공원으로 이동. 남아있는 두 점의 걸개그림을 서울광장의 추모기록으로 보존하도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협의 필요
  · 작가의 작품형 추모그림, 추모조형물에 대한 관리권한 협의 필요
  · 노란리본의 정원은 한국조경사회가 회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설치된 조경작품으로 서울시에 기부한 형태임. 영결식 이후 리본 외 설치한 봉의 처리문제 협의 필요

- 현재 접촉중인 분향소, 추모행사 운영주체(단체)에게 기록의 기증이 '소유, 2차 저작, 활용에 관한 권한의 이양'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운영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증조건도 명확히 협의하여, 최종 기록 수집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함

3 추모기록 생산활용 맥락 예비조사

Check

- ✓ **분향소 및 추모행사를 운영한 주체의 활동과 기록 생산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 ✓ **서울시 기록화 사업 취지 설명 및 기증협의를 위한 1단계 활동**
- ✓ **맥락조사를 통한 추가 리드 확보**
- ✓ **생산맥락 관련 기록 수집**

3.1. 맥락정보 구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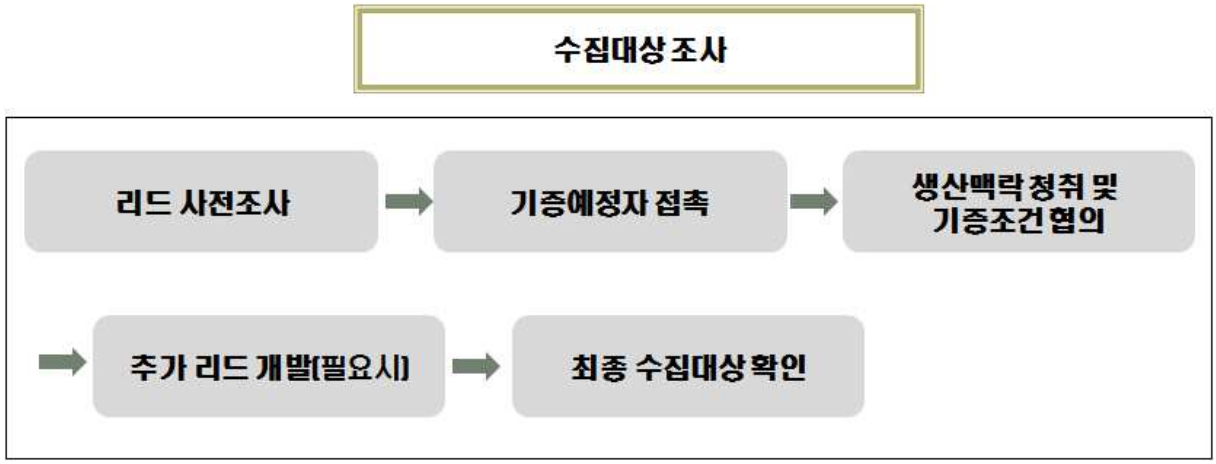
❐ **서울시 기록화사업 맥락정보 확보 필요성**

- ◦ 다양한 운영주체가 결합된 민관 협력 분향소 모델의 표본으로서 향후 동일한 유형의 행사진행시 참조할 수 있는 기록 확보 필요
  - 서울시 총무과 인터뷰 중 故 노무현 대통령과 故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식, 천안함 사건 후 추모행사 등과 관련된 자료가 공문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향후 관련 자료를 모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답변도 있음
- ◦ 리드 및 케이스 개발[6]을 통해 운영주체의 소장 자원 및 기타 자원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만나 논의하면서 기증 대상 추모기록의 정보, 기록의 상태, 맥락정보, 수집의 조건 등을 점검
- ◦ 1차적으로 기록배경에 대한 기술정보로 활용되어 향후 추모기록의 재현 도모
- ◦ 조사된 맥락정보는 추모기록의 2차적 활용을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최종적으로 수집되지 않더라도 차기 수집목표 및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충실한 정보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

6) 리드(Lead)란 잠재적 수집물의 소장자 또는 정보제공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활동연혁 등에 관한 정보이며, 케이스 파일(Case File)이란 리드를 접촉하며 전후 경과를 축적한 정보를 말한다.

❒ 맥락정보 구축 절차/서식

- ㅇ 다양한 운영주체를 리드로 선정하고 단체에 대한 사전조사 수행
- ㅇ 조사를 바탕으로 리드를 접촉, 생산맥락 청취 및 기타 추모기록과 관련된 정보 획득
- ㅇ 접촉한 정보로 최종 기증될 수집대상 확정



- ㅇ 맥락정보 구축시 필요사항
  - 리드/케이스 정보 서식
  - 기록화사업 소개자료(기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설명자료), 질문지

<서식 2> 리드 파일 서식

(* 표시는 필수)

관리번호				
리드명*			유형*	□ 개인 □ 단체
연락정보*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연관정보	-			
리드상태*	□ 잠재적 소장자 □ 소장자 □ 기증예정자 □ 기증자 □ 기탁예정자 □ 기탁자 □ 매도예정자 □ 매도자 □ 관련 리드 소개 □ 기타 ( )			
활동연혁*	생몰연도	-		
	주활동지역	-		
	주요활동	-		
참고자료	-			
최초작성*	-			
최종갱신*	-			
1차 맥락정보	-			
주기	-			

<서식 3> 케이스 파일 서식

(* 표시는 필수)

관리번호			
케이스명*		유형*	□ 개인 □ 단체
소장자료	-		
소장자료 맥락정보	-		
주요수집출처		주요생산시기	

	회수	일시	조사자
접촉일지	1회		
	2회		
	3회		
	4회		
접촉경과	-		
참고자료	-		
최초작성	-		
최종갱신	-		
주기	-		

ㅇ 질문지 작성

- 운영주체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질문지 작성
- 리드 사전조사를 통해 개별적인 질문형태 구체화 마련
- 질문지는 예비적 조치이며, 운영주체의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함

<서식 4> 대상 리드 질문지

1. 단체 차원에서 추모 공간 조성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추진 경과는?
2. 추모 공간에 설치된 추모 기록의 기획 의도는? 설치 기록 유형별 컨셉, 의미
3. 광장 추모공간에 전시된 추모기록을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기증/자체 보존/일부 기증, 작가 작품의 경우 저작권 관련 협의 등)
4. 작가의 작품이 포함된 경우 설치 계기는?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과 작가 연락정보
5. 추모공간 조성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어느 정도? 자원봉사단 명단/규모 등
6. 추모공간 운영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시민들의 추모 분위기의 간접적 기록화 차원)
7. 추모공간 조성 작업에 참여한 소감 한마디
8. 추모 공간 설치와 관련하여 생산한 다른 기록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해당 기록의 기증 여부(사본도 가능)

3.2. 맥락정보 구축 현황

❒ 맥락정보 구축현황(2014.06.04. 현재)

접촉대상 조직/단체	접촉자	현황
서울시 총무과	박■■ 주무관	- 총무과 분향소 업무, 분향소 관련 기록, 에피소드, 기록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인터뷰 실시(05.30)
서울시 행정과	김■■ 주무관	- 추후 검토 예정
서울시 조경과	정■■ 주무관	- 한국조경사회 노란리본의 정원 설치 지원, 운영, 관련 에피소드, 기록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인터뷰 실시(05.29)
한국조경사회	이■■ 사무국장	- 6월12일 인터뷰 실시 예정
대한적십자사	고■■ 팀장	- 질문지 검토후 인터뷰 가부 결정 예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 사무국장	- 추모공간 조성 참여 계기, 추모기록 기획 의도, 다양한 추가리드 청취, 추모기록 관리권한 협의(06.02)
대한불교종단협의회	이■■ 사무차장	- 추모공간 조성 참여 계기, 에피소드, 공간운영, 추모기록 관리권한 협의(06.02)

❒ 맥락정보 관련 기록 수집 현황

접촉대상 조직/단체	접촉자	수집기록(예상기록 포함)
서울시 총무과	박■■ 주무관	-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파일, 사진, 내부 협의후 기록화 사업 지원 관련 문서 등 지원 예정
서울시 행정과	김■■ 주무관	- 추후 검토 예정
서울시 조경과	정■■ 주무관	-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파일, 서울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계획서(한국조경사회 지원자료)외, 필요시 기록화 사업 문서 등 지원 가능
한국조경사회	이■■ 사무국장	- 6월 12일 인터뷰 후 협의 예정
대한적십자사	고■■ 팀장	- 내부 인터뷰 참여 검토 후 협의 예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 사무국장	-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파일, 사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추모공간 관련 사진 자체 수집 후(기획단계임) 서울시에 사진 제공의사 있음. 문서화된 계획서는 없음
대한불교종단협의회	이■■ 사무차장	-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파일, 사진, 청계광장 관련 사진보고서(pdf), 사업계획서

❒ 서울시 추모기록 리드/케이스 파일

- ㅇ 현재 서울시 총무과, 서울시 조경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한불교종단협의회 리드/케이스 파일 작성
- ㅇ 1차 작성 상태이며, 추후 수집 종료시 최종 정리 예정
- ㅇ 부록 1에 수록 전문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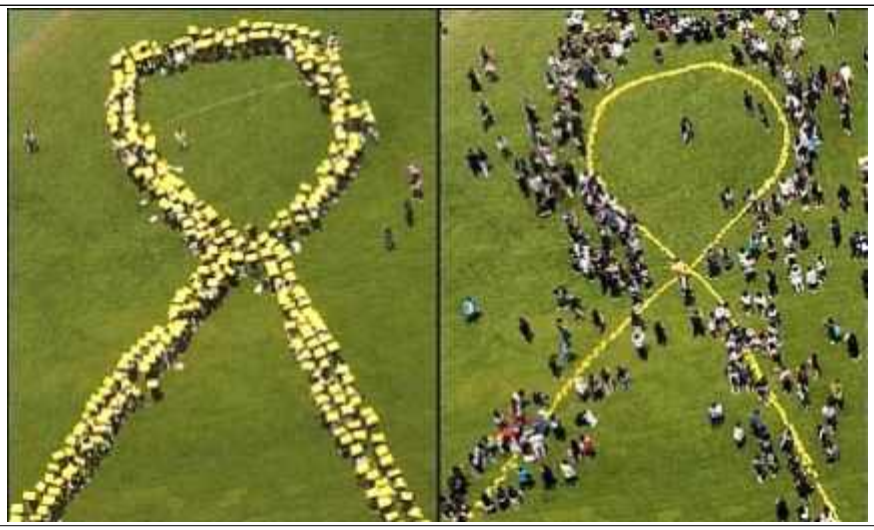
<서식 4> 리드 작성사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완 작업중)

관리번호			
리드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운영지원단	유형*	□ 개인 ■ 단체
연락정보*	전화: 02-734-3924 Fax: 02-6280-3924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71-9 삼성빌딩 4층		
홈페이지	운영지원단 : www.civilnet.net 연대회의 홈피 : http://civilnet.net/xe/page_main	이메일*	■■■@■■■■.■■ 이■■
연관정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운영지원단 총괄 ・이■■ 국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정현백 참여연대 ・박경조 녹색연합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노진철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영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목록 : http://civilnet.net/xe/members -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소속 단체 현황 ・서울(132) 강원(47) 경기(26) 경남(32) 경북(3) 제주(8) 전남(35) 전북(30) 충남(22) 충북(29) 광주(43) 대전(18) 대구(34) 부산(14) 울산(8) 인천(32)		
리드상태*	□ 잠재적 소장자 ■ 소장자 ■ 기증예정자 □ 기증자 □ 기탁예정자 □ 기탁자 □ 매도예정자 □ 매도자 ■ 관련 리드 소개 □ 기타 ( )		

활동연혁*	생몰연도	- 2001년 2월 27일
	주활동지역	- 전국
	주요활동	- 2012~2013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 :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소통과 연대를 지원하는 활동 1. 소통과 통합을 위한 시민운동 연대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시민사회 대화마당, 워크숍 2. 비전, 정책 활동 ・시민사회운동 비전위원회 & 비전포럼 ・청년 비전포럼 ・정책토크, '시민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500인 원탁토론 '시민, 대선을 논하다' 3. 교육 활동 ・시민활동가 아카데미 ・시민운동가 글쓰기 강좌 4.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수행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운동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운동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설립 추진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 추진 5. 의제 참여 ・국회 개방 프로젝트,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제주 해군기지건설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과 연대 ・공정언론 활동 지원 ・핵없는 사회를 위한 생활공공성 회복운동 ・쌍용차, 철도 등 생활공공성 회복운동 ・정전 60년, 7.27 시민평화마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투표 참여운동, "투표하고 웃자!"
참고자료	- 웹 기록 사진 이미지 : 별첨	
최초작성*	- 2014년 5월 28일 (수) 이은영	
최종갱신*	- 2014년 6월	
1차 맥락정보	- "애도와 성찰의 벽" 서울시청 광장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 운영 ・"애도와 성찰의 벽": "애도와 성찰의 한마디(현재 13건 웹 기록 존재)", "자원봉사 참여", "현장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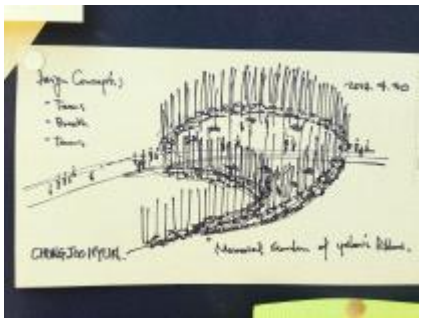
· 관련 뉴스-세월호 관련 주목할 만한 언론 기사 67건(5월 28일 현재) 링크
· 추모 소식-관련 집회, 추모행사, 지역별 합동 분향소 위치 등과 관련된 소식 5건 게재, 인간리본 플래시몹 관련 홍보자료(세월호 참사 한달 416명의 시민에 의한 플래시몹, 검정색 옷차림, 노란 색 색지로 카드섹션한 플래시몹) 포함
· 시민모니터-시민사회단체의 세월호 관련 논평

-"애도와 성찰의 벽" 중 "현장 소식"에 게시된 기록의 웹 사진 37건 존재
· 시청광장에 게시된 추모공간의 현장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기록에 대한 이미지 사진, '노란 리본의 정원'(별도의 단체인 '조경사회' 설치) 디자인 컨셉 도면 사진, 걸개그림 작업 과정에 관한 사진 등이 있음
· 1차로 제작된 걸개그림은 학생들이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를 가정하여 제주도에서 즐거운 수학여행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한 그림으로, 현재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에 전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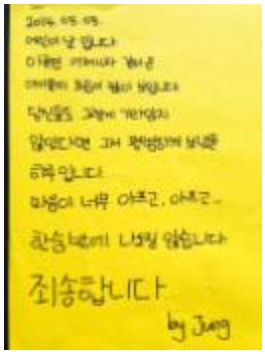


인간리본 플래시몹(2014.5.16.12시30분, 시청광장)
<http://www.civilnet.net/xe/sw_notice/27749>

기억할게



'노란리본의정원' 디자인 컨셉도

<table>
<tr><td></td><td>
<table>
<tr><td>  </td><td> </td></tr>
<tr><td>어린이날입니다.</td><td>침묵의 소리</td></tr>
<tr><td> </td><td> </td></tr>
<tr><td>[5월9일]걸개그림 작업과정</td><td>카네이션을 달지 않겠습니다.</td></tr>
</table>
</td></tr>
<tr><td>주기</td><td>-“애도와 성찰의 벽” 추모공간에는 다른 공간 보다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존재
-플래시 몹 포함 기획의도 파악
-서울시 기증할 기록과 그렇지 않은 기록에 대한 확인: 연대회의 차원에서 작품이 될 만한 특징적인 기록으로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이후 행사 등에 활용할 계획
-작가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맥락 정보 축적 필요- “침묵의 소리”, “걸개그림” 등
-웹 사이트 아카이빙 여부 결정
-추모 공간 운영과 관련된 기타 생산 기록 수집 가능성 타진(플래시 몹 동영상, 플래시 몹 전단지 확보 포함)</td></tr>
</table>

<서식 5> 케이스 파일 작성사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완 작업중)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3"></td></tr>
<tr><td>케이스명*</td><td>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추모기록 수집</td><td>유형*</td><td>□ 개인 ■ 단체</td></tr>
<tr><td>소장자료</td><td colspan="3">-“애도와 성찰의 벽”에 게시된 시민들의 추모글, 작가들의 추모그림
-“기억할게” 모양의 종이배
-“발자국” 작품
- 철제조각, 걸개그림 등 작가 작품</td></tr>
<tr><td>소장자료
맥락정보</td><td colspan="3">-“애도와 성찰의 벽”에 게시된 시민들의 추모글, 작가들의 추모그림
・“애도와 성찰의 벽”은 4.30일 경 사고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모공간” 조성에 관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사망자가 생기는 등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그냥 있을 수만 없다는 생각에 추모공간 조성을 결정하고 서울시 총무과에 “광장 사용 신청서” 제출하면서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
・서울시 소재한 주요 참여 단체(서울 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녹색연합 등)별로 1~2명씩 활동가를 배치하여 추모 공간 조성
・4.30일 하루 이틀 전 연대회의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운영지원단 ‘홈페이지’ 개설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시민들의 추모글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키로 결정(이는 그간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이슈를 주장만 해왔을 뿐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됨)
・시민들이 추모글을 “애도와 성찰의 벽”에 붙이기 시작
・작가들의 그림은 연대회의 회의에 김■■ 화백과 김■■ 작가(■■■ ■■■ 제작)가 참여하여 작가모임 카톡방에 작품 수집 공지 올리면서, 작가들의 작품 그림이 걸리게 됨(디지털 파일을 출력한 사본 그림)
-“발자국” 작품과 글귀
・“발자국”은 연대회의에서 시민들이 발자국 위에 서서 분향소를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추모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
・원래 “기억할게” 종이배가 설치된 곳에 있었으나 서울시청 쪽에서 잔디 훼손 문제가 있다며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여 이후 조금씩 자리 이동이 있었음
・“발자국” 작품 위의 글씨는 김■■ 작가가 전문 작가가 쓰도록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자국” 작품이 더욱 풍부해지게 됨
-“기억할게” 모양의 종이배
・원래 “발자국” 작품이 있던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서 종이배 하나를 접어서 꽂아놓았더니 5월 초 연휴에 분향소를 찾은 가족 단위 추모객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종이배가 6~7천개 정도로 불어남.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질서 없이 흩어져 있던 것을 정리하면서 이■■ 국장이 희생된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트 모양을 만들었고, 나중에 비가 와서 거둬들인 뒤 다시 설치</td></tr>
</table>

<table>
<tr><td></td><td colspan="3">하는 과정에서 하트 모양에다 “기억할게” 글귀를 추가해서 설치(5.16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로 보도됨)
・“하얀 나비” 막대는 나비가 영혼의 상징물이어서 아이들이 배위에서 놀다가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하얀 나비” 막대를 만들어 꽂음
- 걸개 그림 작품 4건
・■■대 고■■ 교수가 연대회의 쪽에 그림 그려주고 싶다고 제의해 고■■ 교수가 밑그림을 그려주고 시청앞 광장에서 제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채색 작업까지 하게 됨
・총 4건의 걸개 그림(1. 환히 웃는 아이들 얼굴 모습, 2. 침몰하는 세월호의 모습을 그린 노란색 그림, 3. 아이들 영정 그림, 4. 아이들의 영혼이 하늘로 가서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그림) 중 2번째, 3번째 그림은 현재 안산문화광장에 전시되어 있음
- 철제 조각 작품
・■■ 작가로 유명한 최■■ 작가의 조각 작품 2점(“사랑”, “세월호 침몰 형상의 철제 조각”)이 추모공간에 전시되어 있음
・이 작품은 최■■ 작가가 회수해 갈 것으로 예상됨
- 플래시몹
・“세월호 대책회의”가 주관한 플래시 몹 행사(리드파일 및 운영지원단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추모공간 조성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서울시 총무과에 “시청 광장의 추모공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음
・서울시에서 추모공간의 모습을 촬영한 여러 건의 사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외 별도로 생산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td></tr>
<tr><td>주요수집출처</td><td>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운영지원단
(걸개 그림 등 작품의 작가)</td><td>주요생산시기</td><td>2014. 4. 30~</td></tr>
<tr><td rowspan="5">접촉일지</td><td>회수</td><td>일시</td><td>조사자</td></tr>
<tr><td>1회</td><td>2014. 6. 2(월)</td><td>이현정, 이은영, 김수언</td></tr>
<tr><td>2회</td><td></td><td></td></tr>
<tr><td>3회</td><td></td><td></td></tr>
<tr><td>4회</td><td></td><td></td></tr>
<tr><td>접촉경과</td><td colspan="3">- 법적 소유권, 저작권 여부를 떠나 서울시에 위탁 보존 및 활용권 제공 의사가 있음
- 추모공간에 전시된 조각 작품 및 추모그림 등은 작가들이 다시 가져가서 8월경 전시회 계획, 그리고 내년까지 어떤 장소, 어떤 방식으로건 전시할 계획이 있음
・추모공간에 전시된 일부 작가 작품(최■■ 작가의 “사랑”, “세월호 침몰 형상</td></tr>
</table>

	철제 조각") 및 걸개그림 4건(고■■ ■■대 교수) 등 · 추모 그림 형태는 작가들의 작품이나 디지털 파일을 출력한 사본으로 이■■ 국장에 따르면, 서울시청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작가 작품 모두에 대해 이■■ 국장이 작가들과 연락해본다고 함 - 그 외 연대회의가 조성한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시민들의 추모글, 종이 비행기 등은 서울시에 위탁 보존할 의사가 있음 - 추모공간은 영결식까지 존치할 것이나 향후 수습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한 상태 - 향후 추모기록의 관리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안산 유가족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예정 - 이미 걸개그림 2점을 안산에 전시하였고 서울 상주 작가를 안산 지역에 연결해 줌, "애도와 성찰의 벽(게시판)"도 일부 안산에 제공(벽에 걸려있던 추모글과 작품은 현재 작업장에 임시보관중)
참고자료	- "기억할게" 경향 신문 사회면 기사(5.16일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61450471&code=940100 - "애도와 성찰의 벽" 추모공간 웹사이트
최초작성	- 2014년 6월 2일 (월) 이은영
최종갱신	- 2014년 6월
주기	- 추모공간 운영하면서 에피소드도 여럿 있었는데, 그중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는 날 판넬도 넘어지고 파라솔도 바람에 날려 도로에 나부끼면서 외제차랑 부딪혀서 수습하느라 애먹은 기억이 있음 - 조경사회가 설치한 "노란리본의 정원" 디자인 컨셉 그림이 "애도와 성찰의 벽"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는 조경사회 정■■ 회장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이후 "노란리본의 정원"으로 형상화됨(눈물, 쉼표의 중의적 표현) - 향후 이현정이 이■■ 국장과 직접 연락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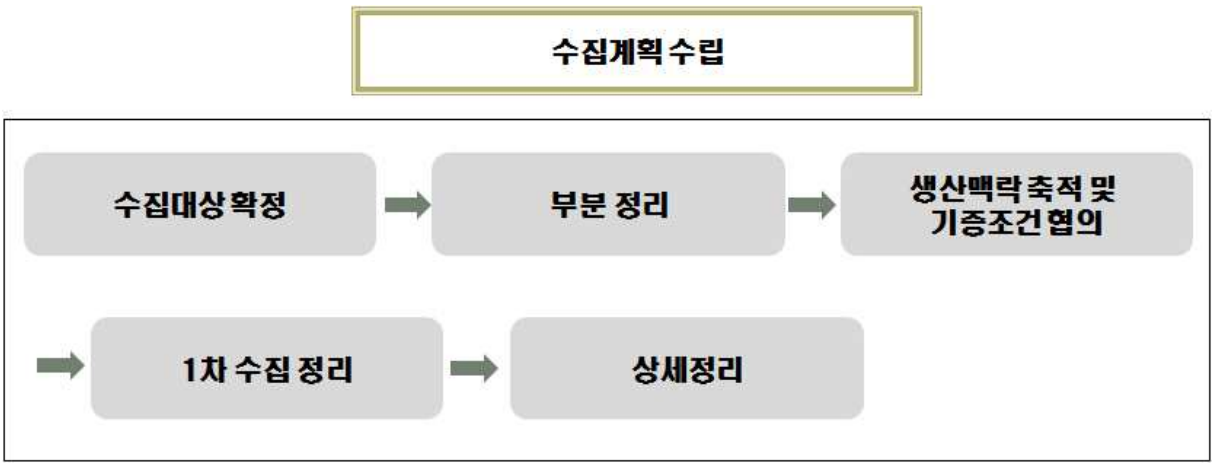
4 수집계획 수립

Check

- ✓ 영결식 전후 서울광장 추모공간 철수시점까지 기록화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 수집계획 수립
- ✓ 부분정리를 통한 보존처리 및 공간계획 확정
- ✓ 물리적 기록 기증 및 관리권 협의과정 진행
- ✓ 추모공간 철수시점 유형별 기록수집방안 제시(1차수집 정리)
- ✓ 상세정리 방안 마련

4.1. 수집계획 수립절차 및 대상 확정

❐ 수집계획 수립 절차



❐ 수집대상 확정

∘ 시민들이 서울시 추모공간에 생산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본 보고서 10~12쪽 참조)

ㅇ 퍼포먼스 유형 추모기록(플래시몹, 기도회 등)

ㅇ 추모기록 생산활용 맥락관련 기록(인터뷰기록, 사업계획서 등)

ㅇ 상기 기록 중 운영주체가 물리적 기증 및 관리권한을 양도한 기록

4.2. 부분정리(샘플정리)

❐ **추모기록 부분정리 필요성**

ㅇ 서울광장 추모기록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리본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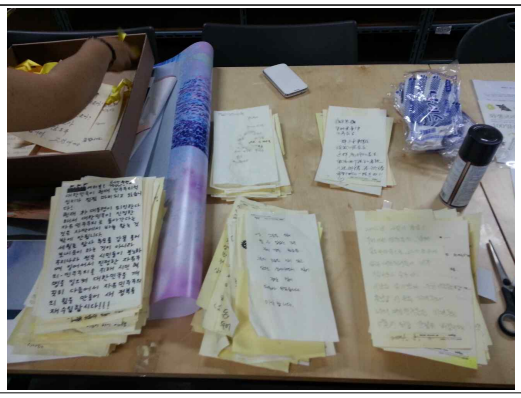
ㅇ 2014년 5월 28일 추모기록 상태분석 결과(기록관리전문가 자원봉사팀) 분향소의 운영 및 기록보존 측면에서 부분정리(샘플정리) 필요성 대두

- 영결식 이전까지 분향소 운영상 가장 많은 시민 참여도를 보이는 리본띠 추모글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직접 매달 수 있도록 기존 리본띠의 일부를 분리하여 공간 확보 필요
- 줄형태로 보존될 리본띠의 과밀화는 기상변화에 노출되어 활용되는 특성상 보존문제(곰팡이 번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세월호 사고희생자 추모기록 기록화사업 일환, 가장 양이 많은 리본띠를 샘플정리하여 최적의 서고보존공간 확보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ㅇ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걸개그림 및 애도와 성찰의 벽 설치물 일부를 안산 문화광장으로 옮기면서 일부 수습된 기록을 우선 정리할 필요성 대두

- 현재 위탁의 형태로 추모기록 작업장에 존치
- 기록의 유형과 물리적 상태점검을 통해 향후 수집계획 수립

ㅇ 서울시 추모공간에서 예정없이 진행되는 추모활동의 적극적 기록화 필요

	
퍼포먼스 기록 수집	위탁 중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록

❒ **부분정리(샘플 정리) 방안**

- 리본띠 형태(줄형태)로 보관될 예정이므로 구역을 설정(희망종이판 좌우를 기준으로 구역 설정)하여 줄을 분리
-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리본을 달 수 있는 위치의 줄을 분리함(새줄 설치)
- 샘플정리이므로 구역당 2~3줄로 한정하여 소망과 추모의 벽이 비어보이지 않게 할 예정
- 샘플정리한 리본띠는 간단한 보존처리(먼지제거, 이물질 제거) 후 세월호 사고희생자 추모기록기록화 사업장으로 이관하여 상세 상태점검
- 보존용품(수집박스)에 존치, 소망과 추모의 벽에 있는 리본띠 보존수량을 예상 파악하여 서고공간 계획 수립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협의하여 보존상태가 열악한 기록을 우선적으로 부분정리하는 문제 협의 진행
- 청계광장 리본띠도 샘플정리하여 보존용품 확정 및 공간계획 도모
- 총무과가 보관중인 희망종이의 경우도 최대한 먼저 수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4.3. 생산맥락 축적 및 기증조건 협의

❒ **지속적인 맥락정보 축적**

- 수집대상을 1차 확보한 후 기증대상자와 지속적 유대관계 속에서 기증조건 및 관

리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도출

- ㅇ 특히 임옥상 화백의 '못다핀 꽃'의 경우 현재 영결식 종료시점까지 청계광장에 존치하는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이므로 존치기간 동안 해당 작품의 보존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간의 협의 필요
- ㅇ 1차 수집정리 전 추모기록 생산배경정보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리드/케이스 파일의 갱신을 통해 관리
- ㅇ 맥락정보의 축적 정도에 따라 향후 2차 사업(추모공간 운영주체 집단면담 등) 구상
- ㅇ 향후 기술정보(추모기록 개요목록)에 기록생산배경정보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함
- ㅇ 기록보존전문가는 서울시와 기증대상자의 기증과 관련된 조건 등에 대해 양자의 입장을 확실히 파악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상태 사진 촬영

- ㅇ 추모기록은 최종적으로 원상태로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관리적 입장에서 원상태 사진 촬영이 필요
- ㅇ 활용단계에서 기록 원상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록물을 해체하기 전에 원상태를 찍어 보관함
- ㅇ 현재 기록물의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해지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경우 원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상태(부분 기록 수습)에 직면해 있으므로 1차 수집 정리전, 최대한 원상태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함
- ㅇ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나 서울시 의전행사관련 부서에 사진 협조 요청 필요
- ㅇ 기록의 원상태 사진 촬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촬영함
  - (실물기록의 규모가 클 경우) 기록의 내용과 맥락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전체 모습(풀 샷)을 촬영 후, 분할해서 촬영
  - (한 장의 사진에 내용식별 및 전체 규모 확인이 가능할 경우) 카메라 앵글 안에 기록이 꽉 차게 촬영. 각도에 따라 여러 장을 찍어 보관함
  - 행사 종료 후 기록을 수습하는데 필요한 사진이므로 담당자는 사진 파일을 폴더로 관리하고 있어야 함
- ㅇ 추후 추모기록 기술 단계에서 목록에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하기 전 상태와 정리 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의 활용과 재현에 사용하도록 함

4.4. 1차 수집정리

Check

✓ **1차 수집정리는 분향소 철거시점 대량의 기록 수습시기를 말함**

✓ **기록 수량에 따라 1차 정리로 끝날 수 있는 것과 2차 상세 정리를 필요로 함**

- **사례 1 : 리본띠(줄형태)는 먼지, 이물질 제거 후 수집상자 보관, 1차 정리로 정리 종료**
- **사례 2 : 다량의 접착메모지, 통일된 형식의 추모글은 우선 수습 후 상세 정리**
- **사례 3 : 활용 중에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한 기록물은 다른 기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대량일 경우 임시 조치 후 상세정리**

✓ **먼지, 이물질 제거 후 보관. 육안으로 상태가 안 좋은 기록물은 따로 보관 처리(종이배의 경우)**

❐ 공간을 구획하여 기록 해체/수습

- ◦ 본 보고서 6~7쪽에 구획된 구역별로 공간을 구획하여 해제/수습
- ◦ (일종의 원질서 개념으로) 접착메모지(포스트 잇), 추모글 모음, 리본띠 등 일정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기록은 적당하게 공간을 구획하여 수집 상자에 담음
  - 사례 : 포스트 잇이나 낱장 추모글의 경우 여러 장에 연달아 이어 쓸 수 있으므로 기록이 연관성있게 보존될 수 있도록 공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떼어냄

❐ 보존 처리

- ◦ 접착테이프 제거: 기록에 부착되어 있는 접착테이프는 스티커 제거제 등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기록을 보호하고, 접착력이 남아있는 부분은 배지(A4 용지)를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감싸주고 정리
- ◦ 곰팡이 및 먼지 제거: 기록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곰팡이를 털거나 붓으로 제거하고 정리. 심할 경우 상자 내에 항균용 방향제 설치(권고)
- ◦ 천 종류(광목, PVC 천 등) 재질로 만들어진 기록은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먼지를 철저히 제거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말려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정리

- 걸개그림은 직사광선을 피해 말리고 가능한 한, 한지(전지도 가능) 등으로 그림 부분에 속지로 한 겹 에워싸서 들러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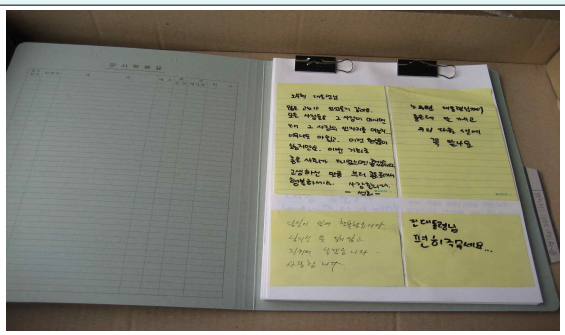
❒ 추모기록 유형별 정리

> ※ 여기서는 주요 유형 기록만을 정리함. 상세한 유형별 정리는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유형별 세부 정리방법 안내」[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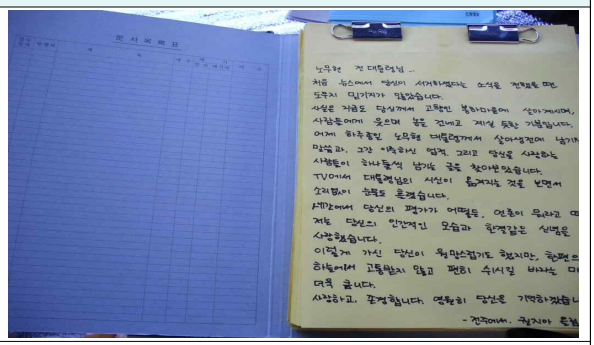
① 종이류 기록(문서, 접착 메모지, 추모글 모음, 유인물, 팜플렛류 등)

- 문서: 추모행사 순서 및 그 밖의 행사관련 문서(유인물, 팜플렛 포함)는 파일에 철하여 정리
- 접착 메모지(포스트 잇) 및 낱장형 추모글
  - 대량일 경우 구획된 공간의 포스트 잇끼리 남은 접착력을 이용하여 붙여서 수집상자에 담는다. 이후 상세 정리시 A4용지에 붙여 파일에 철하여 정리
  - 접착메모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상단에 테이프로 한번만 고정시킨다. 3M 스카치 매직테이프 등 접착력이 좋으면서도 끈적임이 덜한 종류로 선택하여 고정
  - 낱장형 추모글도 파일에 철하여 정리. 기록의 양이 많을 경우 판단에 따라 분철하여 보관

<그림 2> 종이재질 기록정리 전후 모습

유형별 정리 전	유형별 정리 후
	
벽에 붙어 있는 접착 메모지	파일에 철에 둔 접착 메모지

7)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유형별 세부 정리방법 안내」 Version 1.0, 2014. 5. 18. https://drive.google.com/file/d/0B11jxVOsTz2YRG9LWXliUUVIVUU/edit?usp=sharing 또는 http://www.archivists.or.kr/750

유형별 정리 전	유형별 정리 후
	
일정한 사이즈의 낱장형 추모글	파일에 철에 둔 낱장형 추모글

② 시청각 기록

- 인화사진: 기록의 내용 파악 후 행사, 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사진은 봉투에 넣어 유실을 방지하고, 봉투에 내용 및 수량 라벨을 부착하고, 개요목록에 매수를 표시
- 코팅된 사진이나 소규모 판넬형 사진은 파일에 철하여 정리
- CD, DVD,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 낱개로 흩어지지 않도록 파일상자로 취합하여 정리
- 디지털 사진: 기록의 내용 파악 후 폴더로 정리. 폴더 제목규칙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유형별 세부 정리방법 안내」 '인화사진 및 디지털 사진 유형' 참조

③ 박물류

- 근조리본, 종이배 등 소규모 박물은 파일박스/수집상자에 별도로 정리하며, 대규모 박물은 포장하여 라벨 부착 후 별치
- 리본띠처럼 연관된 박물류가 묶여져있는 기록은 최대한 구겨지지 않도록 정리한 후 묶인 그대로 수집상자에 넣어 정리
- 벽보형 추모글 등 대형 종이기록의 경우 둥그렇게 말아 화통이나 도면통과 같은 도구에 넣어 최대한 기록 손상을 방지
- 천으로 된 벽보형 추모글은 먼지 제거 후에 최대한 크게 접어 수집상자에 보관
- 크기가 큰 판넬형 추모글은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감싸 훼손을 방지하고 수집상자 위에 보관

ㅇ 소형 박물류(반지, 뱃지, 묵주 등)은 지퍼락으로 구분하여 정리, 파일박스에 보관

<그림 3> 박물류 기록정리 전후 모습

유형별 정리 전	유형별 정리 후

❒ 임시라벨 부착

ㅇ 접착 메모지 등으로 임시 라벨을 상자 측면 우측에 부착하고 테이프로 고정

ㅇ 기관명/기증자명(현재 상자 개수/전체 상자 번호), 유형으로 정리

- 예시 : 서울시 세월호 사고 분향소 기록(5/50), 희망종이 모음

❒ 인수확인서 작성

ㅇ 인수확인서는(부록 3. 인수확인서 양식 참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필요할 때 작성함. 인수확인서는 기증자와 입수자 양측이 한 장씩 보관

- 민간단체가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분향소 운영 후 기록을 기증할 때
- 자치구가 광역시도에 분향소 기록을 이관할 때

ㅇ 자체 보관할 경우는 개요목록으로 대신함

ㅇ 각 기증처 마다 작성. 서울시 추모기록의 경우 대상은 총무과, 한국조경사회, 시민사회연대회의 등이 해당

ㅇ 이외, 서울시에 기록을 기증하는 단체/개인별로 작성

ㅇ 일자가 다르게 기증될 경우 인수확인서도 따로 받음

❒ 인수목록 관리

ㅇ 인수목록은 입수자가 관리상의 목적으로 작성함
- 추후 기증서, 기증확인서 등 전달 및 관리목록으로 활용
- 서울시의 경우 인수확인서를 받은 각각의 기증자가 인수목록에 기입됨

ㅇ 인수목록의 항목 구성
- 인수일자, 기증자정보(성명, 전화, 주소), 기록물정보(기록유형, 수량), 인수자(부서), 보관위치, 비고 등을 준용하여 작성

<서식 1> 인수목록

연번	입수일자	기증자 정보				인수자	기록물 정보		보관위치	비고
		단체명	담당자명	전화	주소		주요 기록 유형	수량		

4.5. 상세정리

Check

✓ **대량의 기록물이 기증되는 서울시의 경우 상세정리 시행**
- **기록보관 장소에서 상세 정리 시행**
- **시행과 동시에 개요목록 작성과 라벨 부착**

✓ **개요목록은 상세목록/기본목록 중 선택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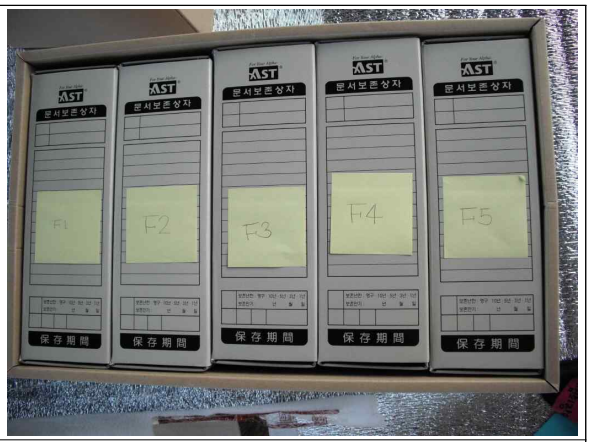
❒ 유형별 상세정리

※ 유형별 상세정리는「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유형별 세부 정리방법 안내」별첨 참조

❒ 대량 기록 상세정리

- 1차 수집·정리에서 정리하지 못한 대량의 기록물을 이 단계에서 최종 정리함
- 유형별로 정리하되, 소규모여서 합칠 수 있는 기록은 한 수집상자에 함께 정리
- 상세정리를 수행하면서 개요목록 작성
  - 수집상자별로 정리하면서 정리 상태와 기록내용 등을 수기로 작성
- 파일박스로 정리할 때에는 파일박스 상단에 접착메모지로 왼쪽부터 F1~F5(파일박스 1~5를 의미)를 부착하고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함(아래 사진 참조)

<그림 4> 추모 기록 최종 정리 유형

	
같은유형 기록보관(리본띠, 모음형 추모글)	파일박스 정리(접착메모지, 작은 박물류)

❒ 개요목록 작성

- ㅇ 향후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기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추모기록의 최소 수준의 관리도구이자 활용의 도구로 사용
- ㅇ 기증자에 대한 정보와 수집기록의 특성 및 개별 기록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부록 3, 개요목록 예시 참고)
  - 기증자 정보: 추후 기록 생산과 관련된 배경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체/개인에 관한 정보
  - 수집기록 정보: 전체 기록에 대한 정보
  - 개별 기록정보: 수집상자별로 정리된 내용에 대한 정보
- ㅇ 기록의 원상태 사진과 필요 시 정리 후 사진까지 넣을 경우(상세개요목록 해당) 한글문서로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함
- ㅇ 대규모 기록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한글 개요목록 외에 검색 편의를 위한 간략 목록을 엑셀 파일(필수요소 중심)로 작성하도록 함

❒ 개요목록의 항목 구성

※ 자체 보관을 하더라도 향후 유족 요청에 의한 이관을 위해 수집처 정보에 공공기관/민간단체 정보를 기입
※ 기증자 정보와 수집기록 정보는 분향소(행사) 단위로 한번만 작성하며, 개별 개요목록은 수집된 수집상자/파일박스 개수대로 작성
※ 기록물 개요목록 예시는 부록 2 참조

<서식 2> 개요목록

(* 표시는 필수)

항목	세부항목	설명
수집처 정보	기증자*	기증단체명
	연락처*	기증 단체 및 개인의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활동연혁	기증 단체 및 개인의 이력 및 연혁
수집 기록 정보	서가번호	기록물이 위치한 보존 공간 구획 번호
	수집일시*	기록물 입수(수집)일자
	기록생산연도 (포함연도)	기증 기록물의 생산연도 또는 포함연도
	수집경위	기록물의 입수(수집) 과정
	기증조건*	기증 또는 위탁의 조건
	수집규모*	전체 수집 기록물의 양. 파일상자 또는 수집상자로 명시
	정리체계	선별, 정리 방식
개별 개요 목록	수집상자번호*	전체 기증기록물의 수집상자 번호-해당 수집상자 번호
	유형*	'유형-세부 유형'의 두단계로 정리.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유형별 세부 정리방법 안내」 유형 참조
	내용*	수집상자 또는 파일박스별 주요 기록물 내용
	정리	수집상자 또는 파일박스별 정리방식 설명
	사진*	기록물의 정리사진(원상태 사진과 정리사진 첨부)
	주기	주요기록과 관련된 기사, 사진 등이 있다면 URL 등을 명시

❒ 개요목록 작성 지침 및 관리

※ 개요목록 작성・관리는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보존방법 안내」[8] 20~21쪽 참조

❒ 라벨 작성

ㅇ 보관장소에 수집상자를 가로/세로로 배치하고 라벨은 수집상자 우측 하단에 부착함

- 인수 시 붙인 접착메모지(임시) 라벨을 제거하고 그 위에 최종 정리 라벨 부착
- 정리라벨 예시

8)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보존방법 안내」 Version 1.0, 2014. 5. 18. https://drive.google.com/file/d/0B11jxVOsTz2YY2VfRkVOYWJQcUU/edit?usp=sharing 또는 http://www.archivists.or.kr/750

수집 기록 내용	
서가번호	
기증일	
기증자	
내용	
주기	

5 보존 관리

Check

- ✓ **정리, 기술이 완료된 기록물의 최종 관리권을 보유한 기관이 기록을 일정한 공간에 보존하는 단계**
- ✓ **서울시가 자체 구획한 서고공간에서 추모기록 콜렉션으로 보존 관리**

5.1. 작업공간 확보

❐ **임시 준비서고 확보**

- ◦ 1차 수집정리 후 최종 정리가 될 때까지 자원봉사자의 기록 반출반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유형의 확인, 최종 보존처리(먼지제거, 철심제거, 접착테이프 제거 등) 등이 수행될 수 있는 공간 확보
- ◦ 시청사 지하 4층 서울시 기록관 서고 부근에 작업장 마련
- ◦ 작업장은 보존처리와 상세목록 작성 등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최종 정리시까지 수집된 추모기록 콜렉션을 존치할 준비서고 개념의 공간 필요

<그림> 작업장 모습

추모기록 작업장 전경	추모기록 작업장 준비 서가

5.2. 보존공간 확보

❒ 추모기록 콜렉션 보존 공간

- ㅇ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소관 서울시 기록관 서고에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콜렉션 공간 구성
- ㅇ 부분정리를 통한 공간계획을 수립, 필요공간 산출
- ㅇ 추모기록의 배열은 서울시 기록관리 단위인 파일박스가 아닌 수집박스 단위이므로 공공기록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콜렉션 구성 필요

부록 1 리드/케이스 파일 예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리드 파일 (보완 작업중)

관리번호			
리드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운영지원단	유형*	□ 개인 ■ 단체
연락정보*	전화: 02-734-3924 Fax: 02-6280-3924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71-9 삼성빌딩 4층		
홈페이지	운영지원단 : www.civilnet.net 연대회의 홈피 : http://civilnet.net/xe/page_main	이메일*	■■■@■■■■.■■ 이■■
연관정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운영지원단 총괄 · 이■■ 국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 정현백 참여연대 · 박경조 녹색연합 ·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노진철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김영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목록 : http://civilnet.net/xe/members -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소속 단체 현황 · 서울(132) 강원(47) 경기(26) 경남(32) 경북(3) 제주(8) 전남(35) 전북(30) 충남(22) 충북(29) 광주(43) 대전(18) 대구(34) 부산(14) 울산(8) 인천(32)		
리드상태*	□ 잠재적 소장자 ■ 소장자 ■ 기증예정자 □ 기증자 □ 기탁예정자 □ 기탁자 □ 매도예정자 □ 매도자 ■ 관련 리드 소개 □ 기타 ( )		
활동연혁*	생몰연도	- 2001년 2월 27일	
	주활동지역	- 전국	

	주요활동	- 2012~2013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 :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소통과 연대를 지원하는 활동 1. 소통과 통합을 위한 시민운동 연대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시민사회 대화마당, 워크숍 2. 비전, 정책 활동 ・시민사회운동 비전위원회 & 비전포럼 ・청년 비전포럼 ・정책토크, '시민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500인 원탁토론 '시민, 대선을 논하다' 3. 교육 활동 ・시민활동가 아카데미 ・시민운동가 글쓰기 강좌 4.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수행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운동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운동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설립 추진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 추진 5. 의제 참여 ・국회 개방 프로젝트,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제주 해군기지건설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과 연대 ・공정언론 활동 지원 ・핵없는 사회를 위한 생활공공성 회복운동 ・쌍용차, 철도 등 생활공공성 회복운동 ・정전 60년, 7.27 시민평화마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투표 참여운동, "투표하고 웃자!"
참고자료	- 웹 기록 사진 이미지 : 별첨	
최초작성*	- 2014년 5월 28일 (수) 이은영	
최종갱신*	- 2014년 6월	
1차 맥락정보	- "애도와 성찰의 벽" 서울시청 광장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 운영 ・"애도와 성찰의 벽": "애도와 성찰의 한마디(현재 13건 웹 기록 존재)", "자원봉사 참여", "현장 소식" ・관련 뉴스-세월호 관련 주목할 만한 언론 기사 67건(5월 28일 현재) 링크 ・추모 소식-관련 집회, 추모행사, 지역별 합동 분향소 위치 등과 관련된 소식 5건 게재, 인간리본 플래시몹 관련 홍보자료(세월호 참사 한달 416명의 시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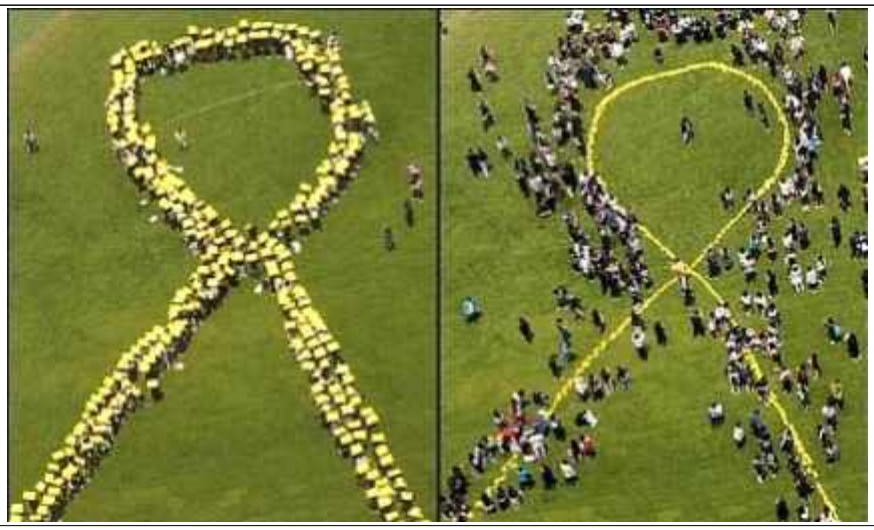
의한 플래시몹, 검정색 옷차림, 노란 색 색지로 카드섹션한 플래시몹) 포함

· 시민모니터-시민사회단체의 세월호 관련 논평

-"애도와 성찰의 벽" 중 "현장 소식"에 게시된 기록의 웹 사진 37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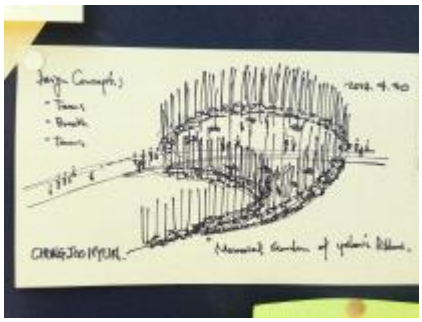
· 시청광장에 게시된 추모공간의 현장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기록에 대한 이미지 사진, '노란 리본의 정원'(별도의 단체인 '조경사회' 설치) 디자인 컨셉 도면 사진, 걸개그림 작업 과정에 관한 사진 등이 있음

· 1차로 제작된 걸개그림은 학생들이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를 가정하여 제주도에서 즐거운 수학여행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한 그림으로, 현재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에 전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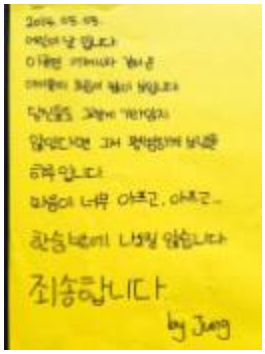


인간리본 플래시몹(2014.5.16.12시30분, 시청광장)
<http://www.civilnet.net/xe/sw_notice/27749>

기억할게



'노란리본의정원' 디자인 컨셉도

<table>
<tr><td></td><td>
<table>
<tr><td>  </td><td> </td></tr>
<tr><td>어린이날입니다.</td><td>침묵의 소리</td></tr>
<tr><td> </td><td> </td></tr>
<tr><td>[5월9일]걸개그림 작업과정</td><td>카네이션을 달지 않겠습니다.</td></tr>
</table>
</td></tr>
<tr><td>주기</td><td>-“애도와 성찰의 벽” 추모공간에는 다른 공간 보다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존재
-플래시 몹 포함 기획의도 파악
-서울시 기증할 기록과 그렇지 않은 기록에 대한 확인: 연대회의 차원에서 작품이 될 만한 특징적인 기록으로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이후 행사 등에 활용할 계획
-작가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맥락 정보 축적 필요- “침묵의 소리”, “걸개그림” 등
-웹 사이트 아카이빙 여부 결정
-추모 공간 운영과 관련된 기타 생산 기록 수집 가능성 타진(플래시 몹 동영상, 플래시 몹 전단지 확보 포함)</td></tr>
</table>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케이스 파일 (보완 작업중)

관리번호			
케이스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추모기록 수집	유형*	□ 개인 ■ 단체
소장자료	-“애도와 성찰의 벽”에 게시된 시민들의 추모글, 작가들의 추모그림 -“기억할게” 모양의 종이배 -“발자국” 작품 - 철제조각, 걸개그림 등 작가 작품		
소장자료 맥락정보	-“애도와 성찰의 벽”에 게시된 시민들의 추모글, 작가들의 추모그림 ・“애도와 성찰의 벽”은 4.30일 경 사고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모공간” 조성에 관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사망자가 생기는 등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그냥 있을 수만 없다는 생각에 추모공간 조성을 결정하고 서울시 총무과에 “광장 사용 신청서” 제출하면서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 ・서울시 소재한 주요 참여 단체(서울 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녹색연합 등)별로 1~2명씩 활동가를 배치하여 추모 공간 조성 ・4.30일 하루 이틀 전 연대회의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운영지원단 ‘홈페이지’ 개설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시민들의 추모글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키로 결정(이는 그간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이슈를 주장만 해왔을 뿐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됨) ・시민들이 추모글을 “애도와 성찰의 벽”에 붙이기 시작 ・작가들의 그림은 연대회의 회의에 김■■ 화백과 김■■ 작가(■■■ ■■■ 제작)가 참여하여 작가모임 카톡방에 작품 수집 공지 올리면서, 작가들의 작품 그림이 걸리게 됨(디지털 파일을 출력한 사본 그림) -“발자국” 작품과 글귀 ・“발자국”은 연대회의에서 시민들이 발자국 위에 서서 분향소를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추모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 ・원래 “기억할게” 종이배가 설치된 곳에 있었으나 서울시청 쪽에서 잔디 훼손 문제가 있다며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여 이후 조금씩 자리 이동이 있었음 ・“발자국” 작품 위의 글씨는 김■■ 작가가 전문 작가가 쓰도록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자국” 작품이 더욱 풍부해지게 됨 -“기억할게” 모양의 종이배 ・원래 “발자국” 작품이 있던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서 종이배 하나를 접어서 꽂아놓았더니 5월 초 연휴에 분향소를 찾은 가족 단위 추모객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종이배가 6~7천개 정도로 불어남.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질서 없이 흩어져 있던 것을 정리하면서 이■■ 국장이 희생된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트 모양을 만들었고, 나중에 비가 와서 거둬들인 뒤 다시 설치		

<table>
<tr><td></td><td colspan="3">하는 과정에서 하트 모양에다 “기억할게” 글귀를 추가해서 설치(5.16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로 보도됨)
· “하얀 나비” 막대는 나비가 영혼의 상징물이어서 아이들이 배위에서 놀다가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하얀 나비” 막대를 만들어 꽂음
- 걸개 그림 작품 4건
· ■■대 고■■ 교수가 연대회의 쪽에 그림 그려주고 싶다고 제의해 고■■ 교수가 밑그림을 그려주고 시청앞 광장에서 제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채색 작업까지 하게 됨
· 총 4건의 걸개 그림(1. 환히 웃는 아이들 얼굴 모습, 2. 침몰하는 세월호의 모습을 그린 노란색 그림, 3. 아이들 영정 그림, 4. 아이들의 영혼이 하늘로 가서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그림) 중 2번째, 3번째 그림은 현재 안산문화광장에 전시되어 있음
- 철제 조각 작품
· ■■ 작가로 유명한 최■■ 작가의 조각 작품 2점(“사랑”, “세월호 침몰 형상의 철제 조각”)이 추모공간에 전시되어 있음
· 이 작품은 최■■ 작가가 회수해 갈 것으로 예상됨
- 플래시몹
· “세월호 대책회의”가 주관한 플래시 몹 행사(리드파일 및 운영지원단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추모공간 조성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 서울시 총무과에 “시청 광장의 추모공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서울시에서 추모공간의 모습을 촬영한 여러 건의 사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외 별도로 생산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td></tr>
<tr><td>주요수집출처</td><td>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도와 성찰의 벽” 운영지원단
(걸개 그림 등 작품의 작가)</td><td>주요생산시기</td><td>2014. 4. 30~</td></tr>
<tr><td rowspan="5">접촉일지</td><td>회수</td><td>일시</td><td>조사자</td></tr>
<tr><td>1회</td><td>2014. 6. 2(월)</td><td>이현정, 이은영, 김수언</td></tr>
<tr><td>2회</td><td></td><td></td></tr>
<tr><td>3회</td><td></td><td></td></tr>
<tr><td>4회</td><td></td><td></td></tr>
<tr><td>접촉경과</td><td colspan="3">- 법적 소유권, 저작권 여부를 떠나 서울시에 위탁 보존 및 활용권 제공 의사가 있음
- 추모공간에 전시된 조각 작품 및 추모그림 등은 작가들이 다시 가져가서 8월경 전시회 계획, 그리고 내년까지 어떤 장소, 어떤 방식으로건 전시할 계획이 있음
· 추모공간에 전시된 일부 작가 작품(최■■ 작가의 “사랑”, “세월호 침몰 형상</td></tr>
</table>

	철제 조각") 및 걸개그림 4건(고■■ ■■대 교수) 등 · 추모 그림 형태는 작가들의 작품이나 디지털 파일을 출력한 사본으로 이■■ 국장에 따르면, 서울시청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작가 작품 모두에 대해 이■■ 국장이 작가들과 연락해본다고 함 - 그 외 연대회의가 조성한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시민들의 추모글, 종이 비행기 등은 서울시에 위탁 보존할 의사가 있음 - 추모공간은 영결식까지 존치할 것이나 향후 수습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한 상태 - 향후 추모기록의 관리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안산 유가족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예정 - 이미 걸개그림 2점을 안산에 전시하였고 서울 상주 작가를 안산 지역에 연결해 줌, "애도와 성찰의 벽(게시판)"도 일부 안산에 제공(벽에 걸려있던 추모글과 작품은 현재 작업장에 임시보관중)
참고자료	- "기억할게" 경향 신문 사회면 기사(5.16일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61450471&code=940100 - "애도와 성찰의 벽" 추모공간 웹사이트
최초작성	- 2014년 6월 2일 (월) 이은영
최종갱신	- 2014년 6월
주기	- 추모공간 운영하면서 에피소드도 여럿 있었는데, 그중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는 날 판넬도 넘어지고 파라솔도 바람에 날려 도로에 나부끼면서 외제차랑 부딪혀서 수습하느라 애먹은 기억이 있음 - 조경사회가 설치한 "노란리본의 정원" 디자인 컨셉 그림이 "애도와 성찰의 벽"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는 조경사회 정■■ 회장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이후 "노란리본의 정원"으로 형상화됨(눈물, 쉼표의 중의적 표현) - 향후 이현정이 이■■ 국장과 직접 연락하기로 함

부록 2 개요목록 예시

'세월호사고추모시민연대' 기록물 개요목록[9]

항목	세부항목	내용
수집처 정보	기증자*	세월호사고추모시민연대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000-01 촛불빌딩 4층 Tel. 02-000-0000 Fax. 02-000-0000 www.activit0416.net
	활동연혁	- 2014.0416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시민단체 - 활동 ·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활동 · 희생자 추모행사 진행 · 사회개혁사업 추진
수집 기록 정보	서가번호	서1-10C-2
	수집일시*	2014.06.04
	기록생산년도 (포함년도)	2012, 2014 · 생전 희생자와 추억이 담긴 기록을 기증할 경우도 있으므로 꼭 2014년 기록만 있지는 않을 수 있음
	수집경위	- 세월호 사고이후 설립되어 분향소 및 관련 행사를 주최하던 중 세월호 추모기록 자원봉사단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여 기록정리 후 ◯◯대 기록관에 기증함
	기증조건*	- ◯◯대에 기증하였으나 유가족이 원하거나 유가족이 원하는 추모공간이 설립될 경우 이관 조건
	수집규모*	- 수집상자 10상자로 1차 정리 - 상세정리 후 수집상자 12개, 별치기록 4개(지퉁 1, 에어캡으로 정리한 판넬형 추모글 3)로 최종 정리
	정리체계	- 유형별 정리 - 노란리본이 달린 대형 구조물은 따로 보관 - 판넬형 추모기록은 사이즈가 큰 상자를 만들어 보관 - 대형 종이 추모기록은 지퉁에 말아 보관

9) 가상으로 단체명과 기증상황 등을 상정하고 예시함. 기록물 사진 출처는 서울광장 추모기록 사진임

상자 번호	구분	주요 내용
1	유형*	- 박물/걸개그림 - 문서/행사관련 유인물
	내용*	- 걸개그림 1점 - 시민의 재능기부로 그려진 걸개그림으로 ○○대 ▷▷▷교수가 밑그림을 그리고 분향소의 시민들이 칠하여 완성한 형태. 추후 ▷▷▷ 교수님을 접촉하여 당시 상황과 교수님이 확보하신 자원봉사자 명단을 받을 예정 - [F1] 1.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유인물 1건 2. 행사안내 리플렛 1건
	정리*	- PVC천에 유화로 그린 걸개그림이 기상변화, 직사광선으로 인해 보존에 심각한 우려가 있음(필요시 추후 보존조치 수행) - 접기 전에 그림 위에 한지(전지도 가능)를 깔고 최대한 크게 접어 수집상자에 보관함(두번째 사진 참조) - 유인물은 파일에 철하여 휘어지지 않도록 신문지 지지대를 넣고 정리
	사진*	
	주기	- 걸개그림과 관련된 기사 : ○○신문 5월 5일자

부록 3 기록 기증 관련 양식

❒ 실제 수집 전후 과정에서 사용될 양식을 개발하여 제시함

- ㅇ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인수확인서
- ㅇ 기증 증서
- ㅇ 기증 확인서
- ㅇ 감사장

제 호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인수확인서

세월호 사고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소중한 추모기록을 기증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기증사항을 확인합니다.

○ 기 증 자 :

○ 기 증 일 :

○ 기증내용 :

○ 기증분량 :

구분		성명	전화번호
기증	담당자		
인수	기관	서울특별시	
	부서	서울특별시 기록관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		

제 호

기 증 증 서

서울특별시의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기록화 사업에 동참하면서, 추모기록이 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추모기록을 기증합니다.

○ 기 증 일 :

○ 기증내용 :

○ 기증분량 :

2014년 월 일

기 증 자 _____ (인)

수 령 자 _____ (인)

서울특별시 귀중

제 호

기 증 확 인 서

그 동안 보관해 오시던 소중한 추모기록을 기증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기증 사실을 확인합니다.

○ 기 증 자 :

○ 기 증 일 :

○ 기증내용 :

○ 기증분량 :

기증해 주신 추모기록은 서울특별시 기록관의 정책과 처리과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발하게 활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제 호

감 사 장

○ ○ ○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와 활용에 초석이 될 소중한 기록을 기증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그 큰 뜻을 기리고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